

가구당 빚 8천만원... '시한폭탄' 가계부채

한계 압박

올 연말 최대 1500조 전망
대출이자 가파른 상승세
영세 자영업 직격탄 우려



올해 가계부채가 150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금리인상에 따른 서민경제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시중은행 대출 창구.

주택을 담보로 당치를 점점 키워가는 가계부채가 이제 터질 듯 말 듯한 위험 수위까지 도달했다. 올해 150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적인 전망마저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경제연구원의 홍준표 동향분석팀장은 올해 말 가계부채 규모가 약 1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는 1380조원, 많게는 1540조원을 예상했다. 1500조원은 정부 1년 예산(약 401조원)의 4배 가까운 금액이다. 가구당 7800만원, 국민 1인당 2900만원의 빚을 지게 된다는 얘기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전망은 보수적이다. 한은은 1400조원 안팎, 금감원은 1400조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분석방법과 연구 자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지만 세 기관의 교집합은 가계대출 증가가 둔화할 수는 있어도 줄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다.

투자자를 위해 돈을 빌린 사람들이야 재산을 정리하면 되지만 문제는 돈 없는 가난한 서민이다. 소득이 낮아 금융기관에 손을 벌리는, 그래서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 소득의 40%를 초과하는, 이른바 한계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계가구는 지금까지 경제 상황은 악화되고, 벌어도 안 되는데 그나마 낮은 이자를 탓에 근근이 버텼다.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어렵게 됐다. 대출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르면 당장 급한 건 자영업자들이다. 한은이 발간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을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 포인트 오르면 폐업위험도가 7~10.6% 오른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의 폐업위험도가 10.6% 상승,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중년층이 직장에서 은퇴한 후 많이 차리는 차진집과 소규모 식당이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대성기자 bigkim@

높아진 대출 문턱

2금융권도 내달부터 소득 심사 강화·원리금 분할 상환

지난해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금융당국이 올해는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 조이기도 나선다. 다음 달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권에도 도입하면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비은행권의 가계부채는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부채가 10.8%,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은 11.4% 늘었다.

간간해진 은행권 대출심사를 넘지 못한 이들이 단위 농·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문을 두드리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은행권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풍선효과' 조짐이 보이자 금감원은 사상 처음으로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도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 목표치

를 제출받았다.

은행들이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평균은 6.9%다. 제2금융권 목표치 평균은 이보다 조금 더 높은 8.3%로 집계됐다. 일부 상호금융조합 등은 증가율 목표치를 20%대로 높게 잡기도 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초반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올해 분할상환 목표 비중을 50%에서

55%로, 상호금융권은 15%에서 20%로 올려잡았다.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고,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켜 가계대출 전반의 건전성을 높여겠다는 취지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에는 한 자릿수로 끌어내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대출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출 어떻게

일단 정책금융 살펴보고 상반기에 빌려야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연일 상승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물론 기존 대출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에 가기에 앞서 자신이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순서라고 말한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라면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활용하는 것이 금리 면에서 가장 좋다.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는

7000만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2.25~3.15% 수준이다. 다자녀 가구나 청약저축 가입자 등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1.8%까지도 받을 수 있다.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70%, 최대 2억원이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단 1주택자는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으로만 2주택이 허용되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꼭 은행만 정답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

왔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요즘은 보험사들도 경쟁이 붙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은행보다 더 싼 곳도 있다"고 말했다.

대출 시기에 대해서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받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금리가 오른다는 점에서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추천했다. 이와 함께 주택 구입이 아니라도 돈이 필요한 저소득 서민층이라면 정부의 서민 금융상품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77.66 (+4.50)	↓ 금리 (국고채 3년) 1.66% (-0.02)
↑ 코스닥 610.96 (+1.75)	↓ 환율 (USD) 1137.90원 (-9.70)

자동차, 세금으로 달린다

휘발유값의 62%... ℓ 당 1455원시 순수 기름값은 549원

최근 국제유가 인상으로 휘발유·경유 등 기름값이 오르면서 여기에 붙는 유류세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유류세가 기름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내차가 기름으로 달리는지, 세금으로 달리는지 잘 모르겠다는 푸념까지 나온다.

6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ℓ 당 1455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서 유류세 등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순수한 휘발유 가격은 549원에 불과하다. 반면 세금은 총 905.75원으로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의 비중이 62.3%에 달했다.

정각 휘발유 자체 가격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 것이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휘발유의 국제 시세와 관계없이 일정하

다. 정책제이기 때문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이 붙는다. 여기에 ℓ 당 16원의 수입부과금, 원유가의 3%인 관세, 소매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가 추가된다.

올해 1월 들어서는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세금 비중은 적어졌다. 1월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ℓ 당 1503원이었는데 세금은 910원으로 60%였다.

하지만 세금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은 여전히다.

경유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좀 더 낮은 유류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375원, 교육세가 56.25원, 주행세가 97.50원으로 모두 합쳐 528.75원이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전경련 탈퇴... 계열사 줄사퇴 예고

SK·현대차 검토 중

삼성전자는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정식으로 탈퇴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경련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다른 삼성 계열사들도 잇따라 탈퇴원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작년 12월 6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더는 전경련 지원금(회비)을 납부하지 않고 탈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LG는 작년 12월 27일에 4대 그룹 중 처음으로 전경련에 탈퇴를 공식 통보한 바 있다. SK와 현대차도 탈퇴 형식과 절차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은 전경련의 전체 연간회비 492억원(2015년 기준) 중 70% 가량을 부담해왔다. /연합뉴스

세일글

"안전·품질 최우선...제2도약 견인"

정찬민 기아차 광주공장장



"광주공장의 제2도약을 위해 가동률과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6일 부임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정찬민(55) 공장장(전무)은 "안전에 방과 일등 품질을 향한 의식 함양으로 광주 공장의 질적 성장을 다져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있는 공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출신인 신임 정 공장장은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정 공장장은 1986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1999년 1월부터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했다. 이후 경영지원본부과 생산현장을 두루 경험했으며 경영지원사업부장(상무)과 경영지원본부장을 역임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KGC
Korea Golf Coop
대한골프협동조합

대한골프협동조합과 함께 골프, 리조트 한번에 다 누리세요!!

회원가입 절차
*신청서 작성 (팩스, 카톡, 문자 가능)
*년회비 (130,000원)

회원가입 혜택
*제휴 골프장 및 리조트 할인혜택
*제휴 골프용품 할인혜택
*국내, 해외 골프투어

대한골프협동조합

골프장 선불회원 컨설팅 사업
국내외 골프투어
지역사회 공헌사업
골프동호회 육성/골프장나무 지원

화순CC | JNJ | 영광CC | 아크로 | 화순엘리체

국내 최초 골프협동조합 탄생!!

보성CC | 디오션 | 함평엘리체 | 제주 | 고창

레저 이용혜택!!

영도라도리조트, 무주로비스콘도, 서해안변신, 서해안대천, 담양메타펜션, 제주골프빌, 화순, 속초, 제주, 송두 금호리조트

KGC 대한골프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우로 18(치평동 890-12) ☎(062)371-1800 · 010-6270-1879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대형 웨딩홀 준공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